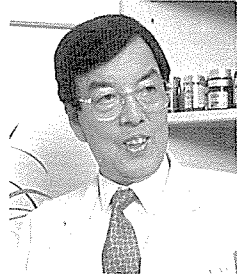


박피술과 탈피술의 피부 치료효과



국 홍 일
(피부과 전문의)

인체 제일 바깥쪽에 있으면서 인체를 보호하고 체온조절을 하며 호흡과 혈압 조절도 하는 피부는 인체기관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며 특수하고 독립된 기능을 가진다. 가장 인간다운 자기표현기관인 피부는 1만6천cm²의 넓이와 두께는 평균 1mm, 몸무게의 15%를 차지하는 인체 최대장기다.

독립된 장기이다 인체 전체에 걸쳐있어 외부물질침입의 전초기지 역할을 함으로써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갖가지 질병으로 괴로움을 당할 수 있다.

그리고 질병의 치료도 중요하지만 치료후 피부상태가 좋하지 않아야 하고 주근깨, 마마자국, 갖가지 색갈의 모반 등 피부미용질환도 치료해 줘야 하는 질환에 속한다.

피부질환치료에는 국소약물요법, 전신적 치료, 물리적 치료 등 많은 방법이 있고 질환에 따라 적용이 다르나 피부의 미세한 상처나 굴곡은 물리요법을 주로 사용, 매끈한 피부로 만든다.

물리요법에는 전기응고, 전기분해, 냉동외과술 등 다양하나 요즘은 거의 없는 마마(곰보)자국을 없애고 여드름으로 생긴 상처를 편평하게 해주는 데는 박피술과 화학적 탈피술이 효과가 있다. 박피술(Dermabrasion)이란 냉동국

소마취제를 살포, 피부조직을 냉동 고정시키고 마취한 후 전동기 또는 공기터반에 다이아몬드 프레이저 브러시 등을 부착해 피부표면을 깎는 수술법이다. 이 수술은 여드름 흉터 등 피부가 패인 흉터 뿐 아니라 색소가얇게 침착된 표재성 문신, 입술주위의 잔주름 제거나 코가 딸기모양으로 되는 주사비치료에 적용된다.

그러나 이 미용외과술을 원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수술만 받으면 새로 피부가 생겨서 흉터는 없어지고 깨끗해지는 것으로 지나친 기대와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작은 상처는 주위의 정상조직을 깎아내 흉터의 깊이를 줄여 다소나마 평평한 느낌을 갖게 하고 색소침착부위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만들어 남의 눈에 쉽게 띄지않는 효과는 거둘 수 있다. 특히 특 튀어나온 비후성 반흔이나 켈로이드 같은 특이체질 환자에게는 이 수술을 하면 심한 화상 상처처럼 되는 수가 있음을 주의해야 한다. 특이체질환자는 눈에 띄지않는 부위에 시험적 박피술을 시행하고 수개월 동안 변화를 관찰한 다음 받아야 한다.

흉터란 같은 사람이라도 상처의 위치에 따라 흉터모양이 다를 수 있고 또 피부의 방어기능은 자주 색소세포가 밀집

되어 2~3개월, 심한 경우 거의 1년동안 시커멓게 되는 수가 있으므로 자외선 차단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망된다. 기미나 주근깨 혹은 혈관종 같은 색소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탈피술(Chemical Peeling)은 피부를 깎아내는 박피술과는 달리 피부에 인공화상을 입혀 각질층을 미세하게 벗겨내 새 세포가 돌아오르게 함으로써 피부를 깨끗하게 한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피부에 바르는 약물은 트리클로로아세트산(TCA: Trichloroacetic Acid)이란 것으로 피부에 무해하다고 되어 있으나 그 용법과 용량은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므로 피부관리실이나 탈피술시술병원에 종사한 경험만 있는 비전문의에게 시술받으면 실핏줄 확장 등 여러가지 부작용으로 피부를 망칠 수 있다. 거기다 일부 매스컴에 보도된 대로 여드름흉터나 피부색소질환이 '썩' '말끔히' '감쪽같이' 없어진다고 기대해서는 안된다.

색소가 불만족하게 지워졌다고 해서 자꾸 되풀이하면 피부가 얇아지고 결국 얼굴이 벌겋게 되는 실핏줄확장증으로 고생하며 피부를 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므로 어느 정도 눈에 띄는 효과만 기대하는 것이 좋다. ①7